

금요 양성 2025년 3월 7일 바티칸 문헌- 친교와 사명 1부

단위형제와 나누시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인류의 빛**(*Lumen Gentium*)과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에 나와 있는 친교(형제회)와 사명(사도직)

국가형제회 양성위원회, 앤 멀퀸, OFS 에게 감사드린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중추적인 공의회이다. 이 공의회에서 크리스찬 삶의 두가지 영역인 친교와 미션이 거론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교회의 역할과 교회안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창출해 내었다.

인류의 빛과 기쁨과 희망은 친교와 미션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우리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핵심 공의회 문헌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 두 문헌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아주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 우리 회칙의 많은 조항이 이 문서에서 나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회칙을 염두에 두고 그 문헌들을 읽으면서 회칙과 유사한 문장들을 찾아 보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교황 바오로 6세의 지휘아래 계속되었는데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한 중대한 여러 문헌들을 작성해 내었다. 그중 **인류의 빛과 기쁨과 희망**은 교회의 본질과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명에 대한 통찰력을 시사한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 금요 양성에서 두가지 점을 집중해 볼 것인데 하나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친교(관계)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명(사도직)에 관한 것이다.

인류의 빛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구조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친교의 의미이다. 이 문헌에서 교회는 하느님과 친교와 모든 사람사이에서의 일치를 나타내는 “성사”의 표지이며 도구임을 강조한다.

기쁨과 희망은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으로 교회의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문헌 **인류의 빛**을 보완한다. 친교의 주제는 그 중심이 세상에의 참여하는데에 있다.

인류의 빛에서 친교는 삼위일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교회란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에 바탕을 두고 하나됨을 이루도록 초대된 백성이라고 정의한다. 삼위일체는 교회 친교의 원천이며 모델이다. 우리는 신적 삶에 참여하여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또 서로와의 관계에서 삼위일체의 일치와 사랑을 반영하도록 불림을 받았다.

인류의 빛은 또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즉 신앙에 의해서 결속된 믿는이들의 공동체라고 말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이상은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교회안에서의 그들의 역할과 상관없이 존엄하고 동등하게 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문헌은 모든 신자들이 거룩함과 사명으로 불려졌음을 강조한다.

교회는 신앙으로 하나가 된 “하느님의 백성”인 믿는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치로 이루는 신비체이다.

2부에서는 이 두 공의회 문헌에 나타난대로 사명에로의 불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이 문헌을 읽어 보고 싶으면 아래의 바티칸 웹사이트에 읽어 볼 수 있다.

인류의 빛 (Lumen Gentium):

https://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const_19641121_lumen-gentium_en.html (영문 사이트)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https://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vat-ii_const_19651207_gaudium-et-spes_en.html

한글 번역본은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사이트에 있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읽어 볼 수 있다.

<https://cbck.or.kr/Documents/Council>

형제회내에서나 소 그룹 토의를 위해:

- + 위의 문헌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단체로 읽어보시오.
- + 이 문헌에서 영향을 받은 회칙 조항 목록을 만들어 보시오. 당신의 선택한 것을 그룹에서 설명해 보시오.
- + 재속 프란치스칸은 거룩함으로 어떻게 불림을 받았습니까?